2021-07-15 16:45:18 / 3199-03경북신문.pdf / 녹색환경과 / 이규철 /

경북도,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개소
中企 5G 융합제품 개발 날개 달았다

2023년까지 인프라 단계적 구축
이동통신사 망연동 시험 전에
오류 개선 전문가 사전 컨설팅
개발업체 1대1매칭 기술 지원
기업들 시험비용 절감 등 효과

경북도가 13일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5G 융합제품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출시에 필요한 시험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경북도 경제부지사, 구미시장, 구미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학계 및 5G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하는 5G 테스트베드는 총 198억원(국비 128억원, 지방비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북도, 구미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이동통신사 상용망과 동일한 수준의 시험·검증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서울 구로 MFT(Mobile Field Testbed)센터와 구미 메인센터(구미전자정보기술원)간 연동해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험망 서비스를 병행해 지원한다.

앞으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는 국내 제조사가 개발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고, 국내 및 글로벌 주파수 대역 상호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동통신사 망연동 시험' 전에 단말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전 컨설팅 무료 제공 및 개발업체-전문인력간 1대1매칭을 통해 단시간내 기업 애로기술 지원한다.

이번 '5G시험망 테스트베드' 개소로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외와 같은 상용망 연동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체류비용 절감, 제품개발 기간 단축, 시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해 5G 융합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5G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5G 제품 개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마련됐다"며, "경북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융합산업 선도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류희철 기자

대구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다중시설 오후 11시까지 제한
일반음식점 핀셋방역 등 만전
변이검사 기존보다 확대 추진

대구시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구의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명이다. 최근 1주간 지역감염으로 인한 평균 확진자 수는 21명이며 이 중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확진자수는 평균 31.3명으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주점과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이 42.9%를 넘고 그 외 학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역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종합방역대책단회의와 범시민대책회의를 거쳐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모임·행사·집회·사적 모임 인원에 산정한다.

또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종교시설은 30%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시는 특히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핀셋방역을 추진한다.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 위반 시 기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유흥종사자의 PCR검사주기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델타변이 의심사례 시 변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노출동선 검사 및 격리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이검사를 기존보다 확대 추진한다.

변이 확인 전이라도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 격리를 통해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이 신속 확정검사에 검사의뢰대상자를 동거가족과 1차 밀접접촉자까지 확대한다. 김범수 기자

"글로벌 메가시티 도약 위해 정책자문委 한축 맡아주길"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
공동·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
1기 성과 "난제 극복했던 시간"
제2기 운영 방향도 함께 안내

경북도가 13일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상동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도 실·국장 등 130여명이 참석해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일자리·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날 총회는 공동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안내, 민선7기 3년 동안의 변화와 성과 및 향후 도정 방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위원장은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곽지영 포스텍 교수가 위촉되고, 이노신 동양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등 10명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상동 신임 공동위원장은 경북대 기획처장과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대학인 경북대를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국내 국립대 중 1위 및 세계 90위를 기록하는 등 경륜과 행정력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또 곽지영 공동위원장은 산업계에 몸담았다가 대학으로 온 인물로서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등 국내최고의 4차산업혁명 전문가이다.

이날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성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전문성 강화, 인구증심 혁신 도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도 함께 안내했다.

최혁준 경북도 정책기획관의 민선7기 3주년 성과 및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3주년의 성과와 관련해 "지난 3년의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 난제들을 극복했던 시간이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경북형 방역모델과 민생 살리기 프로젝트의 동시 시행을 통한 위기극복 모델 정립을 소개했다.

또한, 향후 도정방향 구상을 '新경북 미래키워드'로 소개하면서 공항·항만, Two-Port시대, 인구증심 혁신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지방소멸 극복 대안 제시 등을 핵심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자문위원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이루려면 정책자문위원회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견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도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미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서 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한축을 맡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인교 기자

한수원, ITER 기자재 입찰사업 낙찰자 '선정'

정우산기㈜와 컨소시엄 '구성'
2024년 1월까지 현장 납품 예정

한국수력원자력과 정우산기(주)(이상 '한수원 컨소시엄')는 지난 1일 ITER기자재 입찰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은 EU, 미국, 러시아, 한국 등 7개국이 공동투자해 프랑스 남부 카다라쉬 지방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핵융합실험설비로 2013년부터 건설 중에 있으며 2025년 최초 플라즈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입찰은 ITER냉각수계통 질소 습분분리설비 2종(Demister, Cyclone Separator)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ITER입찰 경험이 있는 정우산기(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수필터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활용한 것이다.

정우산기(주)는 국내 원전에 복수기관 세정장치 등 보조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이번 사업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조달 등을 수행할 예정이고 정수필터는 필터전문업체로 Cyclone Separator에 필요한 필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ITER발주부서는 회원국(EU,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중국 등 7개국) 업체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으며 다음달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는 2024년 1월까지 현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향후 ITER 건설관련 사업관리, 건설감독, 정비용역, 시운전 등 주요 입찰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ITER단기인력파견 제도를 활용하여 한수원 직원 파견도 추진 중에 있다. 한수원은 ITER 사업이 향후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미래 종합에너지 기업' 도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본 입찰사업 수주는 핵융합에너지관련 인력양성 및 경험축적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수원이 미래 핵융합에너지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철탑NO.83)~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철탑NO.121)
다. 사업규모 : L=19.98km(철탑 38기, 봉화군 : 34기, 영월군 : 4기)
라. 사업기간 : 2012년~2021년 (2025년 6월 변경예정)
마. 사 업 자 : 한국전력공사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경상북도 봉화군	2021년 07월 28일(수요일) 14시	춘양면사무소 대회의실

3. 공청회 주재자
: 김세현 교수(상지대학교)

4. 기타사항
가. 의견진술자 추천 기한 : 2021년 07월 21일(수요일)
나. 의견진술 방법
-공술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또는 의견진술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봉화군 녹색환경과(054-679-64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 및 방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드립니다.
다. 의견 진술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02-2096-4612, 4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청회는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석자는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14일
한국전력공사

(주)하나택시 (주)금성택시
◆◆◆ 운전기사모집 ◆◆◆
①통풍시트 차량구비 ②저렴한 사납금
③장애인 우대 ④초보자 환영
■ 혜택 : 4대보험 적용, 전차량 오토차량, 다양한 근무형태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본, 경찰서무사고경력증명서
■ 위치 : 경주시 알마을길 6-1 (충효동 서라벌 CNG 옆)
(주)054)749-3333, (야)010-7298-3804

국내 첫 출시! 인기 돌풍!
쌍별귀뚜라미(추출물)파워
단백질이 풍부한 쌍별귀뚜라미 추출물 95%
각 시도 지점 및 영업사원모집
(주)성산메디칼
sungsan
1577-5090

경주 소비조합
판촉·기념품, 생활용품 모든것 왕도매
할인유통전문업체
개업사은품
가정용품
선물세트
기 념 품
주방용품
업소용품
시 계
사무용품
판 촉 물
가격에 놀라지 마세요
필요한것 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로133(성동)대영빌딩6층
☎ 054-745-6998
H·P:010-2056-0615

허점투성 REC가중치제 악용… 전기료 폭탄

〈재생 에너지 증명〉

영농형 위장 태양광사업 난립 "제도개선 시급" 한 목소리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이 의심되는 부실한 버섯재배사(왼쪽)와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정상적인 버섯재배사. 최기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정책을 악용하는 영농 관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전국이 난개발 몸살을 앓고 국민은 부당하게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연환경 보호와 탄소 배출의 원인인 화력발전과 난개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제도'는 관련 법규와 기준의 허점을 파고드는 발전사업자들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시설 및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녹지 및 대지에 설치된 시설에 비해 탄소배출권 보상가를 1.2~1.5배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담보하기 위해 농업 관련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1.5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최근 봉화군에 대규모 버섯재배사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 그 목적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녹지 및 일반 농지를 활용하면 가중치 0.7배를 적용 받는 것에 비해, 버섯재배사의 형식만 갖추고 정상적으로 버섯을 재배하지 않아도 1.2배의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버섯은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작물이기에 통상 온·습도와 채광을 조절 할 수 있는 30평형 내외의 규모로 운영된다. 하지만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외형을 갖춘 대규모의 허술한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버섯 재배 목적이 아님을 쉽게 추측 할 수 있지만 규제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봉화군 담당자는 "버섯 재배를 내세워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정작 버섯은 재배하지 않아 난개발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생산지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러나 아직 버섯재배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시설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통상적인 건축물 기준에 맞춰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담당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 제도는 농가의 농외 소득을 보장하려는 매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면서도 "농림부와 한전,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함께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공단의 힘 만으로 난개발은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최기탁 기자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 17일 개막… 주제는 '오 마이갓'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이 '연극, 오마이갓'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3일간 안동과 예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한민국연극제는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연극협회 경상북도지회, 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1983년 전국지방연극제(부산 개최)를 기원으로 39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국내 최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연극제는 2009년 제27회 전국 연극제가 구미에서 열린 이후 12년 만에 경북 도내(안동·예천)에 유치됐다.

올해 연극제의 슬로건 '연극, 오마이갓'은 연극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탄사와 안동과 예천의 양반정신, 유교문화를 '갓'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담았다.

세부공연 일정은 개막식, 본선경연&초청공연, 네트워킹페스티벌&초청공연, 오마이갓 프린지 페스티벌&토크콘서트, 학술프로그램, 폐막식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7시 안동탈춤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본선공연에서는 전국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16개 연극팀이 총 32회의 공연을 펼친다.

김용호 기자

장흥군 간부 공무원 37명 수재민 돕기 성금 기부

장흥군 간부 공무원 37명이 수재민 돕기 성금을 기부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 정종순 군수, 임성수 부군수를 포함한 실과소장,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 37명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180만8000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흥군 간부 공무원들의 기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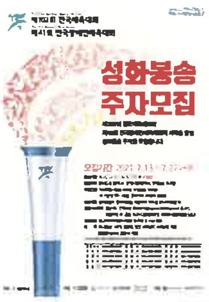
장흥군 간부 공무원들의 기부에 이어 6급 팀장급 이하 전 공무원들도 자율적으로 기부에 동참 중이다.

임성수 부군수는 "금번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8, 9일 2일간 전 공무원들이 방문해 복구 지원에 참여했다"며 "주택 침수로 도배 장판 교체가 시급한 가구가 많아 십시일반 뜻을 모으게 됐다. 피해 지역이 신속히 복구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광철 기자

"대회 시작 성화로 밝혀주세요"

전국체전 봉송 주자 740명 모집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10.8~14)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20~25)의 시작을 밝혀줄 성화 봉송주자 740명을 13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해당지역 거주자로 성화 봉송에 문제가 없는 만 15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성화봉송 구간 시·군청 체육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성화 봉송은 구간별 주주자 2명, 부주자 2명, 호위주자 6명을 1개조로 구성해 성화봉과 수기(마스코트기, 엠블럼기)를 들고 봉송한다. 봉송주자에게는 유니폼, 운동화, 헤어밴드 등 주자용품을 지급한다.

경상북도는 10월 3일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한 전국체전 성화와 구미시 금오산에서 채화한 장애인체전 성화가 102개 구간 1013km를 동시 봉송한다. 102개 구간은 제102회 전국체전을 1013km는 10개 시와 13개 군으로 이뤄진 경상북도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성화봉송은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대구·경북 특별봉송, 시군별 역사·문화·경제적인 특색을 살린 이색봉송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호 기자

경북道 "체납은 줄이고 민생은 살리자"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경상북도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식

경상북도는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원 104명을 선발하고 이달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은 실태조사 전담요원을 비롯해 도와 23개 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격려사, 체납징수 지원단 출범 선언 및 실태조사원 복무선서문 낭독, 단체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했다.

체납징수 지원단 출범선언에 앞서 지방세수확충과 조세 정의 확립 등 지방세정 선진화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10명(지방세 확충분야 : 포항시 이정진 외 4명, 체납분야 : 김천시 김용길 외 3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3월 출범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경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체납세가 급증하자 체납 처분 강화보다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위기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는 복지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 속으로 편입하려는 '따뜻한 징수행정'의 출발이다.

실태조사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은 각 시·군별로 모집해 82명을 신규 선발하고 기존 7개 시군에서 채용한 납세지원관 외 인원 22명과 통합해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104명으로 구성했다.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간) 체납자 거주지 방문 및 전화 조사 활동을 한다.

김용호 기자

공동농장운영으로 활력 불어넣는다

강진군 군동면 화방마을 시범사업 성과에 큰 호응

강진군이 농촌어르신의 활력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참여마을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다양한 경험 등을 활용해 공동체 생산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군동면 화방마을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화방마을은 주민 30여명이 공동 재배가 가능한 마을 밭 700평에 공동농장을 조성해 옥수수와 대파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일 옥수수를 첫 수확했다. 옥수수 수확 후 시래기용 무를 파종해 가을철 무청시래기를 생산 할 계획이다. 수확한 옥수수는 화방마을 향우회, 주민의 가족과 지인에게 판매할 계획이며 수익금은 전액 마을 어르신들의 활동에 지원된다.

안광철 기자

구미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를 축하합니다!

구미시

구미시노·사·민·정 협의회가 '구미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 개소'를 축하하는 이색홍보캠페인을 펼쳤다.

구미 "작업복 기름때 시원하게 빼자"

'노동자 공동세탁소' 내일 개소 노사민정협의회, 홍보 나서

구미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구미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 개소를 앞두고 13일 오전 광평 오거리에서 한국노총구미지부 회원 30여명과 함께 이색홍보캠페인을 벌여 시민의 눈길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노동자복지증진차원에서 작업복전용세탁소를 설치해 운용에 앞서 시민과 공단노동자들에게 세탁소 설치와 운영취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다.

노동자 작업복공동세탁소는 위탁운영 공모결과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돼 15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관내 사업장의 노동자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될 계획이다.

노동자작업복공동세탁소 설치사업은 산업현장의 최 일선에서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분진, 쇳가루, 기름때 등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근로복지증진 사업으로 관내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협의회 위원장인 장세용 구미시장은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사업이야말로 기업인과 노동자모두를 위한 체감형 복지사업"이라며 "내륙 최대산업도시에 걸맞은 정책으로 기업하기 일하기 좋은 도시 구미건설에 큰 몫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4.

한국전력공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
  나.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철탑NO.63)~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철탑NO.121)
  다. 사업규모 : L=19.96km(철탑 38기, 봉화군 : 34기, 영월군 : 4기)
  라. 사업기간 : 2012년~2021년 (2025년 6월 변경예정)
  마. 사 업 자 : 한국전력공사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경상북도 봉화군	2021년 07월 28일(수요일) 14시	춘양면사무소 대회의실

3. 공청회 주재자
  ☞ 김세현 교수(상지대학교)

4. 기타사항
  가. 의견진술자 추천 기한 : 2021년 07월 21일(수요일)
  나. 의견진술 방법
  - 공술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또는 의견진술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봉화군 녹색환경과(054-679-64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 및 방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드립니다.
  다. 의견 진술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02-2096-4642, 4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청회는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석자는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1-07-15 16:45:41 / 20210714-스카이데일리.pdf / 녹색환경과 / 이규철 /